

# 순천시 '불통 행정'이 부른 비극

40대 남성이 자신 소유 부지에 주유소와 가스충전소 등을 건립하기 위해 신청했던 수차례의 허가가 반려된 뒤 담당 관청인 순천시에서 분신해 숨졌다. 순천시 행정 처리 과정에서 민원인과의 충분한 소통이 부족한 데서 비롯된 사건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관련기사 11면】**

지난 20일 오후 12시10분께 순천시 장전동 순천시청 정문에서 서모(41·순천시 생목동)씨가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뿌린 뒤 분신했다. 서씨는 정문에서 분신, 5~6m 달려가 서사 로비에서 쓰러진 뒤 서을 성모병원으로 옮겼으나 21일 오전 7시40분께 숨졌다.

경찰은 일단, 건축 허가 여부를 둘러싼 순천시와 서씨의 갈등에서 비롯된 사건으로 파악하고 있다.

서씨가 자신의 땅에 주유소를 짓겠다며 건축 허가를 신청했는데, 순천시가 보전 가치가 있는 '우량 농지 보존지역'으로 판단해 허가를 내주지 않으면서 시작된 갈등과 순천시 행정에 대한 불신이 해결되지 않으면서 끝내 분신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서씨는 지난 2008년 4월 순천시 아흥동 D 자동차운전학원 앞 자신의 우량 농지(전용

면적 2997㎡·906.6평)에 주유소를 하려고 허가 신청서를 냈으나 거절당했다. 해당 부서는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된 우량 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농지법(제37조·농지전용허가 등의 제한)을 적용했다.

서씨는 이후 2011년부터 올해 2월까지 가스충전소(㎡ 2997㎡)·소매점(㎡ 842㎡)·농가주택(㎡ 842㎡) 등으로 업종을 변경, 잇따라 건축 허가 신청을 했지만 순천시는 모두 같은 이유를 내세워 불허했다.

서씨는 건축 허가가 반려될 때마다 "내 소

## 민원인 건축허가 불허 등에 불만... 분신 사망 시민 비난 여론 일자 민원복지국장 대기발령

유 우량 농지의 허가는 불허하면서 인근 우량 농지에 대해서는 건축 허가를 내주는 게 맞느냐"며 순천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이마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순천시는 지난 1993년 8월 5일 서씨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 우량 농지의 경우 제방과 인접해 보전 가치가 적다는 이유로 허가(전용 협의)를 내렸고 광주지법도 서씨의 주장에 반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서씨는 이후 시장과의 면담 등을 통해서도 순천시 행정에 대한 불신을 떨쳐내지 못하고 시청 앞에서 한 달간 1인 시위를 벌이

면서 순천시 행정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다. 순천시의 경직된 민원 처리 행태에 대한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특혜성' 의혹에 시달리지 않기 위해 사무적으로, 법적 잣대만을 들이대면서 민원인과 소통하는 데 부족했던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대해 순천시는 "민원인에게 충분히 이해시키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법적인 문제도 중요하지만 소통 행정의 근본이 부족했다"면서 민원복지국장을 대기발령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 ? 숨진 서씨는 왜

서씨는 분신 직전까지 광양시 광양읍에서 주유소를 운영해왔다.

아내와 1남1녀를 둔 서씨는 주유소 사업 확장 등을 위해 건축허가를 받으려고 했다. 고인은 순천만 정원박람회장과 순천만과 인접한 곳에 위치한 자신의 토지에 주유소를 차릴 경우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인은 지난 5월 순천시의회에서 건축허가 문제와 관련, "지난 7~8년간 이 땅 때문에 빛이 많다. 집에 압류가 들어와 살기가 어렵다. 왜 시민을 죽이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제가 여기서 휘발유를 뿌리고 죽어야 억울함이 풀릴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 같은 곳서 또 추락사

## 대불산단 DHMC 하청업체... "안전불감증 사고"

한 공장에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작업을 하던 노동자 2명이 잇따라 추락해 숨졌다. 업체측의 안전 불감증에서 비롯된 사고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20일 오전 8시30분께 영암군 삼호읍 대불산단 내 DHMC중공업 선박복합제조공장 지붕(가로 30m·세로 120m)에서 태양광설치업체인 A사 직원 김모(54)씨가 15m 높이에서 추락해 머리 등을 크게 다쳐 119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김씨는 이날 공장 지붕에서 동료 4명과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던 중 옥상 채광창이 깨지면서 떨어져 변을 당했다. 영암경찰은 김씨가 추락 사고 예방 등을 고려해 안전 로프를 몸에 묶는 등 조치 없이 작업에 투입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중이다.

이 공장에서는 지난 10월 10일에도 태양광 설치작업에 나섰던 직원이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A사 직원 안모(38)씨도 태양광발전시설 공사를 앞두고 공장 외벽에 안전망을 설치하던 중 빗물에 미끄러지며 추락, 119 등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당시 안씨가 추락방지용 로프에 안전 고리를 연결하는 등의 조치 없이 작업을 하다 사고가 난 점을 감안,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A사 관리소장 등을 입건한 바 있다.

A사는 이후 현장 관리소장을 교체하고 작업을 이어갔지만 또 다시 안전 사고가 발생, 안전 대책 마련 등에 소홀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 공장에서 같은 사고가 2차례나 발생하면서 목포고용지침의 지도·점검도 미흡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경찰은 A사 관리소장을 상대로 안전 대책 준수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DHMC 중공업에 대해서도 책임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우리는 몰래산타"** 지난 21일 광주시 남구 구동 광주공원에서 발대식을 한 '사랑의 몰래산타 광주본부' 산타 300여 명이 옛 도청까지 거리 퍼레이드를 펼치고 있다. 몰래산타들은 오는 24일까지 지역의 소외된 이웃을 찾아가 선물을 전달한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갯돈 때먹고 달아난 60대 여성 구속

광주남부경찰은 22일 동네 주민들의 갯돈 수익원을 때먹고 잠적한 혐의(사기)로 유모(여·61)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 2010년부터 남편 김모(69)씨와 함께 1인당 월 50~100만원씩 내는 '순번제'를 5개 조직해 운영하면서 한달 100만원씩 내면 월 20만원의 이자를 가져갈 수 있다고 유혹해 17명의 주민으로부터 4억원을 입금 받은 뒤 잠적한 혐의다. 경찰은 또 남편 김씨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광주일보 12월17일자 6면

유씨 등은 광주시 남구 월산동과 주월동 일대에서 복욕탕, 식당 등을 하며 친분을 쌓은 주민 수십명과 계를 조직해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초기에는 갯돈을 제때 지급해 주민들의 신뢰를 얻은 뒤 "갯돈을 나중에 받으면 더 많은 이자를 가져갈 수 있다"며 지급을 미루며 잠적했다가 최근 피해자 신고가 이어지면서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 부부는 은행 등 금융기관에 약 3억원의 빚을 졌으며 사채도 빌려 쓴 것으로 전해졌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 '이마트 노조 사찰' 사측 5명 기소...정용진 무혐의

검찰이 신세계 이마트의 노조원 불법 사찰 및 노조설립 방해 의혹과 관련, 사측의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된다며 전·현직 임직원 5명을 기소했다.

검찰은 사측의 노조원 미행·감시도 부당노동행위라며 범죄 사실에 포함했다. 그중 오너인 정용진(45) 신세계 부회장과 허인철 이마트 현 대표는 불법행위 가담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광수 부장검사)는 이마트 노조원들에게 인

사상 불이익을 주고 노조 설립·홍보 활동을 방해한 혐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으로 최병렬(64) 전 대표(현 고문)와 인사 담당 윤도(52) 상무, 부장급 1명, 과장급 2명 등 총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사측은 직원들이 민주노총에 가입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100여명의 개인 이메일을 회사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한 혐의(개인정보 보호법 위반)를 받고 있다.

연철뉴스

## 담배 안 빨면 꺼지게...저발화성 기능 의무화

이르면 2015년부터 국내 유통되는 모든 담배에는 불을 붙인 채 일정 시간 흡입하지 않으면 스스로 꺼지는 '저발화성 기능'이 전면 도입될 전망이다.

저발화성 기능이란 권련지 안쪽에 특수 물질을 코팅, 담배를 빨지 않으면 코팅된 부분에서 자연스럽게 꺼지도록 한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20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이러

한 내용을 담은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되면, 일정 유예기간을 거쳐 저발화성 기능을 가진 담배의 판매만 허용된다. 개정안은 담배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화재방지성을 갖춘 담배만 제조하거나 수입하도록 했다. 현재 KT&G는 이 기술을 '더원' 제품에 적용해 지난 7월부터 시판 중이다.

연철뉴스

**사람+금융=광주새마을금고**

37년의 역사와 전통으로  
서민금융을 지켜온 **광주새마을금고**

### 대출 리모델링 전문

대출한도 개인 500억원  
법인 1000억원  
(중앙회 플러스 연계대출 한도 포함)

비율 최고 80%  
취급대출 : 동산 및 각종 부동산 (중고시설 전문)  
금 리: 최저 4.06%~

돈이 모이는 비과세 금융상품  
세금없는 비과세 최고 7,000만원  
(출자금 1,000만원, 예·적금 3,000만원, 생계형 3,000만원)  
광주새마을금고에 오시면 꼼꼼하게 보겠습니다.

**MG 광주새마을금고**  
대표 본점: 361-3515 양동 지점: 362-6164  
전화 각학지점: 268-6163 풍암금호지점: 651-6167  
광주광역시 서구 천변로 246번길 3

### 선암동 전원 주택용지 분양

자연과 함께 하는  
**어등산 빌리지**

광산구 선암동 414-17번지 일원  
분양면적 7008㎡(8가구)  
분양가격 전용면적 평당 130만원  
각 필지 면적 약150평~420평(분할·합병가능)  
현 토목공사 90%진행중

**70% 분양완료!**

단지설명 자연속 힐링 주거단지

1. 분양면적은 전체가 쓸 수 있는 전용면적입니다.
2. 각 필지별 상·하수도관 연결공사 완료
3. 각 필지별 건축허가 완료(각종세금 납부완료)
4. 각 필지별 6m도로 접

찾아오시는길: 선운지구, 영광, 어등산 골프장, 호남대학교, 어등산 빌리지

도심속 친환경 명품주거타운

선운공인중개사 010-2475-0933 / 010-5166-0013

이탈리안 뷔페 **아이엘리시아**

80여가지의 다양한 이탈리안 메뉴  
온 가족이 마음껏 행복에 맞게 드실수 있는 프리미엄 이탈리안 뷔페  
돌잔치, 피로연, 칠순연, 세미나, 각종행사  
(100석, 68석 40석28석, 16석 룬반비)

구분	영업시간	성인(세탁비포함)	취학어린이(포음료포함)	미취학어린이(포음료포함)
평일	11:30~22:00	15,500원	9,000원	6,000원
토요일공휴일	11:30~22:00	19,500원	12,000원	8,000원

Steak 이용요금(별도판매):  
1. 로크 Steak 8,000원  
2. 맥길버 Steak 9,000원  
3. 비프 Steak 10,000원

유스퀘어 2층  
예약 및 문의 : 062)671-1199

**유스퀘어점 YONAMJA**

매콤한 요양자 필라프 YONAMJA Spicy sauce pilaf ₩7,900	몽골레 YONGUE Hot ₩10,800	베이컨 카르보나라 Bacon Carbonara Hot ₩10,800
밀라노식 허브 크리스피 치킨 스테이크 Milano-style crispy chicken steak Hot ₩10,800	블루베리 덴버포크 스테이크 Blueberry Denver pork steak Hot ₩10,800	크랜베리 디아블로 폴로 스테이크 Cranberry diablo polo steak Hot ₩10,800

유스퀘어 2층 아이엘리시아 옆 문의 : 062)673-7979